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출마 1년 전 쓴 '불구가 된 미국(원제: Crippled America)/아마존닷컴 캡처

(...10페이지에 이어) 연었다. "(MS의 틱톡 인수 관련) 거래액의 상당부분이 미국 재무부로부터 와야 한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김경준 딜로이트 컨설팅 부회장은 "민간 기업간 거래 대금의 일부를 미국 정부가 받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트럼프가 MS에 대해 내가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 너희에게 큰 도움을 주었으니 그걸 잊지 말고 제대로 행동해라"라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트럼프는 빌 게이츠를 비롯한 실리콘밸리 기업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거나, 최소한 친(親)바이든 진영으로 완전 기우는 것을 막는 효과도 거두었다. 중국은 14억 자국 시장에서 구글·페이스북·유튜브·트위터 등의 접속과 영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기업인들은 이런 마당에 중국 IT 기업들에 대한 트럼프의 압박과 때리기 공세를 두손 들고 반기고 있다.

再選 가도에서 우군 확보 및 '親바이든' 단속 효과도

최근 1주일 동안 트럼프의 '틱톡' 관련 발언은 언뜻 보면 뜬금없고 황당하다. 거래가 성사되면 돈을 내라는 부분에선 장사꾼 특유의 경박(輕薄)함마저 느껴진다.

하지만 속사정을 뜯어보면, 그의 발언은 '미국 제일주의(America First)'라는 국정목표에 무엇보다 충실하다. 또 미국 경제(특히 IT업계)에 확실한 도움이 된다. 나아가 올 11월 대통령 재선(再選) 가도에서 민주당 지지 기반인 캘리포니아주와 실리콘밸리 기업인들을 뒤흔드는 부수 효과도 쟁겼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의 이번 '틱톡' 발언은 '1석3조'를 거둔 묘수(妙手)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라. 패를 드러내는 것은 명청한 일"

트럼프는 대통령 출마 1년

전인 2015년 출간한 자신의 저서 <불구가 된 미국(원제: Crippled America: How to Make America Great Again)>에서 이렇게 밝혔다.

"나는 무엇을 할지 말하지 않고, 경고를 보내지 않으며, 예측 가능한 패턴을 드러내지 않는다. 나는 무슨 행동을 할지, 혹은 생각을 하는지 드러내고 싶지 않다. 나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상대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구가 된 미국' 한국어 번역판, 79쪽)

그러면서 트럼프는 "나에 대한 많은 비판자들은 모두 기존의 규칙을 따르고, 예측할 수 있는 단계를 밟으며, 통념에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온순(溫順)하게 경기를 하느라 바쁘다. 나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없다. 패를 드러내는 것은 저지르지 말아야 하는 아주 명명한 실수다"라고 강조했다.

그가 모순돼 보이는 막말을 쏟아내는 것은 자신의 패(속셈)를 드러내지 않기 위한, 의도적으로 '계산된 행위'라는 얘기이다.

트럼프는 1987년 출간해 400만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 저서인 <거래의 기술(원제: The Art of Deal)>에서 성공적인 협상 방법을 소개하면서 "먼저 상대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동요(動搖)를 일으키게 해야 한다"고 했다. 상대의 평정심을 깨트린 뒤, 허(虛)를 찔러 의도하는 목표를 관철한다는 것이다.

종합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미치광이 전략(madman's strategy)'의 대가(大家)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와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라는 책을 쓴 안세영 전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그에 앞선 44명의 미국 대통령과 DNA 자체가 다른 트럼프는 '도라이'가 아니라 관성(慣性·매너리즘)에 젖어 있는 워싱턴 기득권자들의 한계를 깨는 전략적, 창의적 사고의 소유자"라고 말했다.

'첫 흑인여성 美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의 독특한 이력

13세 때도 시위 주도 '자신 만만'... 유리천장 잇따라 깨 '야심만만'

바이든 저격수에서 첫 흑인 여성 부통령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는 누구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1일(현지 시각) 자신의 부통령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55)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을 지명했다. 자메이카계 흑인 아버지와 인도계 어머니를 둔 해리스는 미국 부통령에 출마하는 최초의 흑인 여성이자 최초의 아시아계 미국인이 됐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지명 소식을 다룬 기사에 "리닝메이트는 보통 중요하지 않지만, 해리스는 다를 수 있다"는 제목을 붙였다. 해리스가 그만큼 독특한 이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2016년 상원 의원에 처음 출마할 때, 해리스는 영어로 'Kamala'라고 쓰는 자신의 이름을 발음하는 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인터넷에 올렸다. "캐멜라, 카말라, 카멜라가 아닙니다. 카말라예요." 미국인도 낯설어하는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인도 브라만(인도 신분제인 카스트 제도의 최고 계급) 가문 출신으로 과학자였던 어머니 시야말라 고팔란(2009년 작고)이었다. 카멀리는 산스크리트어로 '연꽃'을 뜻한다.

아버지 도널드는 중남미 카리브해의 섬나라 자메이카 출신으로 스탠퍼드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냈다. 해리스의 부모는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유학 중, 흑인 민권운동을 하며 가까워져 결혼했다. 1964년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두 딸 중 맏이로 태어난 해리스는 과거 인터뷰에서 "유모차 높이에서 민권운동을 보며 자랐다"며 "인생 최초의 기억들은 거리를 행진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다리와 구호를 외치는 소리"라고 했다.

7세 때 부모가 이혼하고 세 살 아래 여동생과 함께 어머니 손에 컸지만, 자신을 '흑인'으로 인식하며 자랐다고 한다. 작년 1월 낸 자서전에서 그는 "어머니는 미국이 여동생과 나를 '흑인 소녀'로 본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를 자신감 있는 흑인 여성으로 키우기로 결심했다"고 썼다.

박사 학위를 받고 유방암을 연구하던 어머니 직장을 따라 해리스는 중·고등학교를 캐나다에서 다녔다. 이곳에서도 13세 때 아이들이 아파트 잔디에서 놀지 못하게 한 규정을 바꾸기 위한 시위를 성공적으로 이끌기도 했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해리스는 유서 깊은 흑인 대학인 워싱턴DC의 하워드대에서 정치학과 경제학을 공부했다. 상원 의원실 인턴, 아프리카계 여대생들의 단체인 '알파 카파 알파'(Alpha Kappa



▲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포럼 행사장에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사진 왼쪽)가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와 악수하고 있다.



Alpha) 활동 등의 이력을 쌓았다.

로스쿨 졸업 후인 1990년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경찰을 지휘해 범죄자를 기소하는 자신을 "톱 캅(Top Cop)"이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한 적이 많다. 검사 시절부터 해리스는 '야심가'였다. 1994년 그는 당시 캘리포니아 주의회의장으로 지역 정가를 짊어지고 있던 흑인 정치인 윌리 브라운(85)의 연인이 됐다. 해리스보다 서른 살 많은 브라운은 당시 아내와 별거 중인 바람둥이였지만, 해리스는 그와의 교제를 통해 주위원회 임원직을 지내며 정계 인맥을 쌓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브라운이 최초의 흑인 샌프란시스코 시장에 당선된 직후인 1995년 말 헤어졌지만, 둘의 관계는 해리스 정적(政敵)들의 공격 빌미가 됐다.

해리스는 지속적으로 '유리 천장'(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깨 왔다. 39세 때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임기 동안 해리스는 기소 후 유죄판결을 받는 비율을 52%에서 67%까지 끌어올렸고, 검사장을 연임했다. 46세 때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에 출마해 당선됐다. 캘리포니아 최초의 흑인 여성 법무장관인 데다, 열정적인 연설 스

타일로 '여자 오바마'란 별명을 얻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해리스는 2014년 동갑내기 백인 변호사인 더글러스 엠호프와 결혼했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지만, 엠호프가 이전 결혼에서 얻은 딸이 둘 있다. 부통령 후보 지명 이후 조 바이든의 부인 질은 트위터를 통해 엠호프에게 "준비됐나요?"라고 물었다. 엠호프는 "일할 준비가 됐다. 레츠고(Let's go)"라고 답했다. 해리스가 부통령이 되면, 엠호프는 미국 최초의 '세컨드 젠맨'이 된다.

트럼프 "카멀라를 사기꾼... 미국 망칠 완벽한 조합"

지명자 발표에 동영상 리트윗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각)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되자 공격을 가했다.

그는 이날 코로나 관련 브리핑에서 해리스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는 나의 '넘버원' 선택지였다(부통령 후보로 제일 낫다고 생각했다)"면서도 "그는 민주당 경선에서 형편없었다. 잘할 줄 알았는데 2% 정도 지지율로 마감했

▲ 2020년 6월 30일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유세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

고 돈만 많이 썼다"고 했다. 이어 "해리스가 (경선 토론에서) 바이든에게 아주 못되게 굴었다. 바이든이 무례한 해리스를 택해 난 약간 놀랐다"면서 "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훨씬 더 좋아한다. 그는 바위처럼 단단하다"고 했다.

트럼프는 또 '바이든, 급진 좌파를 끌어안다'라는 문구가 담긴 동영상을 트위터에 리트윗(재전송)했다. 이 영상은 트럼프 대선 캠프가 제작한 것이다. 영상에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스스로를 '이양기 대통령(transition candidate)'이라 부르고 있고, 취임 직후 곧장 주도권을 해리스에게 넘길 것'이라는 설명이 들어갔다. 영상은 '느려터진 조(바이든), 사기꾼(phony) 카멀라, 미국을 망칠 완벽한 조합'이라는 문구로 끝난다.

하지만 트럼프는 사업가 시절이던 2011~2013년에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이던 해리스에게 6000달러(약 711만원)를 후원하기도 했다. 당시 트럼프는 "뉴욕 법무장관의 요청으로 후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해리스는 이 후원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왼쪽) 전 부통령과 바이든의 러닝 메이트로 11일(현지 시각) 지명된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서로 마주 보며 손바닥을 마주치고 있다. 바이든 캠프가 11일 공개한 이 사진은 언제 어디서 촬영된 것인지 알려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12일 델라웨어주에서 열리는 행사에 처음 러닝 메이트로 함께 나설 예정이다.

카멀라 해리스는?

- 1964년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출생 (만 55세)
- 1986년 하워드대 졸업 (정치·경제학 전공)
- 1989년 캘리포니아대 로스쿨 졸업
- 2004~2011년 샌프란시스코 검사장
- 2011년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당선 (흑인 여성 최초)
- 2017년 캘리포니아 민주당 상원의원 당선
- 2019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